

회원사소식

남부햄

원료돈 계약 사육

남부햄(대표 권태殷)은 농가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충남 홍성군청에 의뢰, 이 지역 후계자들과 추진한 「원료돈 계약 사육」을 지난 5월 정식 체결했다.

정부와 기업, 양돈 농가가 공동으로 추진한 동 사업에 남부햄은 현재 충남 홍성군 홍북면 1만두 규모의 자체 농장에 경기도 송탄 지역 5천두 규모의 농장을 6월 이 지역으로 완전 철수함에 발맞춰 이 지역 후계자 50여 명과 1만두 정도의 돼지사육을 추진, 완료된 것이라고 한다.

남부햄은 현재 자금이 부족한 후계자에게는 한 사람당 10두씩 용자, 분할 상환해 줄 계획이며, 기술지도, 관리, 육종, 수의사문제, 교육까지도 담당할 계획이라고.

특히 계약사육이 추진되면 안정적 원료공급과 가격 보장이 되므로 양쪽 모두 수급 및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한편 가격은 서울 3개 도매시장 평균 값의 66%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햄·우유

육가공제품 기술도입

롯데햄·우유(대표 姜晋佑)는 서독의 육가공회사인 슈타인하우

스와 기술도입 계약을 2월말 체결했다. 유럽과 일본 등지에 6개의 육가공회사를 갖고 있는 슈타인하우사는 1백50년의 전통으로 햄, 소시지 제조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창립 11주년 기념식

롯데햄·우유는 지난 4월12일 창립 1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모범사원 및 장기 근속 사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한강 고수부지에서 본사와 청주공장 대항 야구대회 및 각 써클별 볼링대회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가졌다.

롯데 그룹 인사

롯데그룹은 3월14일 임원 6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 바, 롯데햄·우유의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무 林謙模, △상무 金仁煥 △이사대우 李泰鍾

삼원농역

단합대회 겸 야유회

삼원농역(대표 梁璟錫)은 5월 21일 경기도 청평에서 야유회 겸 단합대회를 갖고 육가공제품의 시장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고.

1백30여 전 종업원이 참가, 각종 게임을 겸해 가져진 이날 단합대회에서는 노사간에 격의없는 대화로 흐뭇한 시간이 되었다고.

성경육가공

대만 신동양식품과 제휴

성경육가공 黃承燮 사장은 대만 최대의 육가공회사인 신동양식품의 초청으로 지난 5월1일부터 5월6일까지 6일간 대만을 방문, 현지 육가공업계 현황을 파악했다.

黃사장은 방문기간 동안 동 회사와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드라이비프 및 분말화한 돈·우육 제품과 소시지 제품에 대한 생산을 적극 추진, 제품을 동사를 통해 전망 수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黃사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육가공기술학교를 이수했으며, 본지에 「육가공 교실(Meat School)」이란 내용으로 기술 현황을 연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제일제당

육가공제품 기술도입 계약 체결

제일제당(대표 安是煥)은 독일 유수의 육가공회사인 후랑크앤드홀더그룹(Frank & Holder Group)과 육가공제품 제조기술에 대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89년 하반기부터는 Delicatessen

류를 위주로 한 정통 독일식 육가공제품을 국내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육가공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육가공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육가공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 보다 새롭고 뛰어난 맛의 제품을 찾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Frank & Holder Group은 Ostermeier, Frank, Haas, Schon, Ehlers, WUFA의 6개 계열회사를 거느린 독일 유수의 육가공회사로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각국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공급해 온 우수한 식품회사이다.

제일제당에서 제조기술 도입을 통해 '89년 하반기에 처음 선보이게 될 제품은 비어싱켄, 바이스부어스트, 레겐스부르거, 바이에른싱켄부어스트 등의 제품들로서 이들은 국내 소비자에게는 매우 낯설지만 선진국 소비자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고급제품들이다.

제일제당은 지난 '88년 올림픽기간중에 이미 후랑크앤드홀더그룹과 육가공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독일 올림픽선수단에 정통 독일식 육가공제품을 생산, 공급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이때의 경험과 그동안 축적된 자체기술, 이번의 기술도입을 통하여 보다 좋은 육가공제품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제일제당이 세계의 육가공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캠페인 벌여

「깨끗하고 친근한 기업이미지 정립」을 위한 캠페인을 지난 3월부터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는 「움추렸던 파란 꿈들, 짝 띄우는 3월」 2단계로는 「깨끗한 제품 캠페인」, 3단계로는 6월부터 판매, 생산직 사원들의 유니폼을 산뜻하게 바꾸고, 대고객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판매 현장에서의 몸가짐이나 언어에 대해서도 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진주햄

姜皓文이사 상무 승진

진주햄(대표 朴載福)은 지난 1월1일자로 姜皓文이사를 영업 1, 2부, 무역담당 상무이사로, 金영조이사를 총무, 회계, 축산, 전산 담당 상무이사로 각각 승진 발령했으며, 文영덕이사대우를 이사로, 金자형 본사 총무부장을 자금부 서울 총무담당 이사대우로 승진 발령했다.

중부공장 착공식

진주햄의 중부공장 착공식이 지난 4월13일 충남 논산군 가야곡

면 현장에서 朴載福사장을 비롯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져졌다.

이날 착공식을 가진 동 공장은 대지 1만2천5백평에 건평 4천5백평의 3층 건물로 오는 11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일 생산능력은 축육 40톤, 냉동식품 5톤으로 동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육가공장중 제일 큰 규모를 갖추게 된다고.

춘계 체육대회 성황

진주협은 6월10일 경기도 일산 소재 YMCA캠프장에서 춘계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체육대회는 朴載福사장과 姜皓文상무 등 6백여 전 임직원 및 대리점주가 참가 리크레이숀, 축구, 야구, 릴레이 등 게임을 갖고 상하간 격의없는 대화를 나눔으로서 신뢰감을 더욱 굳게 심어 주었다고.

코델리

집체교육 큰 성과

코델리(대표 白雄基)는 6월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청평소재 가든연수원에서 60여 전 종업원이 참가한 가운데 집체교육 겸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가져진 교육에서는 정신훈화 및 사기양양책과 조직 구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과나, 회사 발전을 위한 분임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느라 전 종업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케 했다고.

만남의 광장 호응 커

바베큐 족발, 후랑크소시지 등

고급 제품에 주력하고 있는 코델리는 강남 서초동 등에 마련한 매장이 소비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는데 힘입어 영동 다모아극장 옆에 「미팅·프레이스(만남의 광장)」이란 상호의 매장을 6월2일 신설, 큰 성과를 얻고 있다.

동 매장에서는 동사의 10여개 품목을 진열 판매하므로써 고급 이미지와 함께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매장을 계속 신설하여 소비자 호응에 부응키로 했다고.

펑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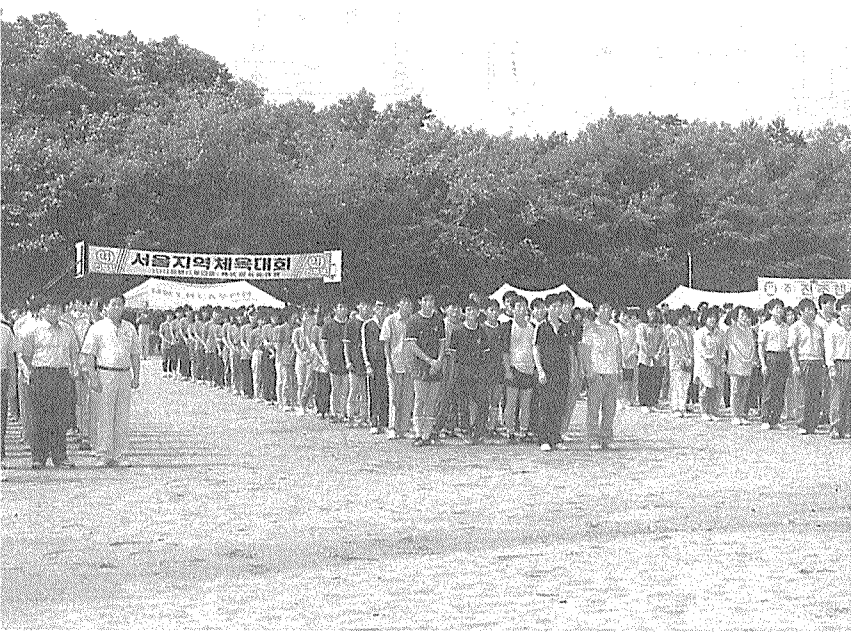
본부장에 金安圭이사

펑권(대표 黃鳳變)은 지난 2월 1일자로 金安圭이사를 영입, 육제품사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한편 육제품사업본부장이었던 李吉駿상무이사는 육제품 및 통조림 총괄 생산담당 상무이사로 임명되었다.

한국냉장

조직 대폭 확대 개편

한국 냉장의 운영이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직영 체제로 전환, 그동안 安敎德사장이 겸직하던 대표이사 사장에 申建鎬부사장이



4월1일자로 선임되었다.

이에따라 한냉은 부사장제를 신설하고 본부장제를 도입하는 등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하고 신입 부사장에 南鍾祐 전 농림수산 부자재검사소장을 임명했다.

동 사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이사 중심제에서 본부장제로 전환, 관리, 축산, 사업 등 3개 본부장제를 채택 냉장사업을 비롯한 축산사업을 대폭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6월1일자로 3개 부서장을 이사로 승진, 權영철관리본부장(무역부장), 申영삼축산본부장(유통부장), 成영달사업본부장(기획실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또한 감사에는 金周鶴 전 농림수산부 교수부장이 6월7일자로 취임했으며, 李文求이사와 李德興이사는 노량진수산시장 감사와 관리이사로 전보되었다.

**'88년 대일돈육수출량
7,936톤**

우리나라는 지난해 7,936톤(63

만 마리분)의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 4천 70만 5천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정부의 수출 계획량 6,000톤 보다 32% 증가한 양이고 '87년 수출량(3,140톤)보다는 무려

153%나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지난해 23개 업체에서 돈육수출에 참여했는데, 그중 제일농장이 1,784톤, 제일제당 1,776톤, 동남육가공 861톤, 청양식품 765톤 순으로 수출했다.

〈표 1〉 '88년도 돈육 수출량 및 금액

(단위 : M/T, 천달러)

구 분	'88년		'87년		'87년 대비 증가율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돈육 수출	7,936	40,705	3,140	15,638	152.7%	160.3%

〈표 2〉 '88년도 업체별 돼지고기 수출 실적

(단위 : M/T)

순위	업 체 별	수출량	순위	업 체 명	수출량
1	제 일 농 장	1,784	13	삼 원 농 역	163
2	제 일 제 당	1,776	14	우 전 식 품	108
3	동 남 육 가 공	861	15	진 주 햄	103
4	청 양 식 품	765	16	사 조 산 업	68
5	은 정 산 업	553	17	축 협 중 아 회	62
6	롯데	486	18	코 포 렉 스	38
7	하 남 통 상	200	19	한 국 냉 장	30
8	남 부 햄	198	20	세 진 무 역	20
9	영 보 물 산	180	21	대 림 식 품	11
10	청 양 산 업	173	22	혜 인 농 장	10
11	서울경기양돈조합	173	23	기 타	16
12	신 창 상 역	172		합 계	7,936